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Symbolism of Karesansui Garden in Japan

Yi, Hoon* · Jeong, Ok-Heon**

ABSTRACT

Japanese Karesansui gardens were developed from the Ho-jo garden of the Zen Buddhism temple. Karesansui gardens which are planned in the inner court of Ho-jo, residences of zen abbots, ar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white sand in the narrow space resembles water, and things like mountains, islands or cranes and turtles which stand for perennial youth and longevity are presented symbolically by building stones or using stone construction. Also, great universe as well as might nature such as mountains, rivers and the sun is expressed in the limited space. Since Karesansui gardens are pictorial and abstr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is type of garden without considering the symbolism given to the garde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osition techniques of Karesansui garden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t and rational understanding of the construction space.

Keywords : Ho-jo, Karesansui, Ryoan-ji, Daitoku-ji, Tofuku-ji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본의 선은 원래 인도의 요가 등과 관련된 명상법이지만, 이론과 실질은 중국사상과 같은 관계를 맺으며 중국에서 발전한 것이 다. 일본에서도 선은 가마쿠라시대부터 한쪽으로는 무인으로서 생사의 각오를 필요로 하고 또 한쪽으로는 새로운 지배계층으로서의 주체 성이 필요했던 무사의 지지를 받았다.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들어 승자가 건립되면서 동양 국가(夢想國體)를 중심으로 선종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며 天龍寺를 건립하게 된다.1) 선종사원 내에 있는方丈(Ho-jo)은 원래 仏師의 居室을 말하는 것이지만, 선종사원의 本山이나 塔頭에 설치된 건물로 승려들의 일상생활이나, 전개, 의식 공간 등으로 사용되며 지는 寺院의 성격과 仏堂의 기능들이 합쳐진 住宅風의 건물이다. 일반적인 方丈 건축은 前 2월, 左右 3월로 모두 6개월을 들여놓은 형편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면의 안마당에는 枝山本堂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정원은 고분시대(300~710)후기에 시작되어 794년의 천도와 함께 교토에 전해졌다. 당시의 교토는 늘지대가 많아 적공들은 들을 뒤로 하고 푸들었었다. 실내의 설계는 외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고려되었으며, 들은 자연의 풍경을 재현하여 못게 적 정리해서 배치되었고, 이것이 유명한 일본 정원의 기본형이 되었다. 건축공간에서의 들 양식은 시대적, 사상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계설계되고 변화되어 왔다. 그런 변화와 더불어 구성기술에 다양한 상징적 수법을 내재하고 독특한 표현기술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枝山本堂 정원이다. 일본의 枝山本堂 정원은 전사의 方丈 Wien에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론과 실천 사상과 풍경을 제외하고 묘사하여 작쟁되어진 자연풍경설정원과는 다른 구성요소를 갖는다. 즉, 공간에 작은 백 석의 돌로 돌을 표현하고 돌을 빼거나 석조를 사용하여 산과 산물 혹은 不老長生을 의미하는 聖, 域, 耕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산(山), 川, 海(海) 대자연(大自然) 뿐만 아니라 大宇宙(大宇宙)를 한정한 공간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 석조의 형태 속에는 그 시대의 종교, 철학, 이상 등을 추상적으로 담고 있다. 方丈의 다마미(tatami) 방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하람이 들으며 그것은 담아 다른 형식의 돌을 접할 수 있다. 각각의 특특한 구 성기술을 지양하는 돌의 조각자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다양성을 갖게 되며, 方丈 건축의 내부에서 바라보는 돌의 경관은 목조 개구부를 통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윤곽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에 포함되는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도 역시 요구된다. 일본 方丈의 안에 구성되어진 枝山本堂 정원은 화학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원에 부여된 상징성(象徴性)을 고찰하지 않고는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화학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정원에 부여된 상징성을 고찰하지 않고는 명확한 이해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화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의 枝山本堂 정원에 대한 구성기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교토여 스키에 선종사원의 方丈 건축에 작정된 枝山本堂 정원을 대상으로하여 方丈을 축